

로마, 총본원  
1948년 8월 1일

사랑하는 수녀님들,

지난 해 10월 7일, 거룩한 목주기도 축일에 우리의 주보 베네딕도 알로이시 마셀라 추기경이 로마에 우리 수녀회의 총본원과 모원을 공식적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수녀님들도 아시다시피 이태리 관구 본원인 피오 10세의 집에서 지내왔습니다. 비오 10세의 집은 언제나 로마 총본원의 개원과 연관될 것이며 참으로 친절하고 환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며 그 시간 동안 24시간 성체 현시의 특권을 나누어 줌에 대해 사랑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올해 들어 좋으신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노틀담 수녀회에 세 번째 모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모원은 1850년 4월 2일에 코스펠드에서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38년 후, 두 번째 모원이 1888년 1월 7일에 몰하우젠에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녀회는 60년 동안 라인란드의 확실한 근거지에서 넓고 멀리 성장하고 퍼져 나갔습니다. 계획 수립과 기도, 돌아가신 우리 두 총장 메리 세실리아 어머니, 메리 안토니에 어머니의 많은 희생으로 수년간을 보낸 뒤 그리스도교의 중심인 로마에 세 번째 모원과 총본원을 구입할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새 중심지의 실질적 매입은 1948년 6월 23일 수요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크고, 빠르게 확장하는 우리 수녀회의 행정부를 위한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는 데 여러 달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규모와 성격에 부합하는 중심지를 가져야 하는 건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100군데가 넘는 부지를 보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메리 안토니에 어머니께 많은 기도를 바친 뒤, 복되신 어머니의 칠고 축일이며 성 요셉 축일인 3월 19일 금요일에 마침내 로마 외곽 몬테 마리오의 북동 부 경사지에 위치한 부동산으로 결정했습니다. 작고하신 메리 안토니에 어머니께서 미래의 총본원을 두고자 희망하셨던 곳이 몬테 마리오였습니다. 이 부지는 조경이 잘 된 약 8에이커의 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지에서 서 있는 빌라는 컸지만, 6년 동안 우선 양편의 군인들이, 그 이후 피난민들이 점거하여 전쟁 상황으로 많은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현재에는 빌라를 복구하고 확장하는 중입니다. 미래의 새 주소는 비아 델라 까밀루치아 45입니다. 새 모원이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기능할 것이기에 전체 수녀회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관구와도 별도로 모원의 공식적 이름은 "CURIA GENERALIZIA della Congregazione delle Suore di Nostra Signora – 노틀담 수녀회 총본원"입니다. 총본원은 동시에 수녀회의 모원이기도 합니다.

토요일이었던 어제, 성 이냐시오 축일이자 메리 안토니에 어머니의 기일에 새 총본원의 미래 성당 아래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태리에서는 “깃돌”이 아니라 “초석”을 놓는 것이 관례입니다. 초석은 땅에 놓는 첫 번째 돌이며 전체 구조물이 이 돌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보 추기경께서는 오후 5시 30분에 있었던 이 장엄한 행사에 우리와 함께 하여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이 더운 여름날 오실 수 있는 성직자와 일반신자 등 되도록 많은 지인들을 초대했고 동시에 수녀회가 세워진 각국의 대표들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지인들의 대다수가 로마 외부에서 휴가중이어서 아래의 귀빈들, 사제들, 일반인들을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우리 경축행사에 맞아들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교목과 “시중드는 이”와 함께한 베네딕도 알로이시 마셀라 추기경

산타 마리아 델아니마 신학원 주임, 엘라 주교 칭호를 지닌 알로이스 후달 신부  
 그레고리안 대학교 고고학 교수, 앙겔베르트 키르슈바움 신부, S.J.  
 예수회 미국 총참사 V. A. 맥코믹 신부, S.J.  
 예수회 총대리 티모시 부스캐런 신부, S.J.  
 그레고리안 대학교 존 B. 히르슈만 신부, S.J.  
 안젤모 수도회 조지 바르취 신부, O.S.B.  
 안젤모 수도회 폴 고다나 신부, O.S.B.  
 안젤모 수도회 베다 톰 신부, O.S.B.  
 트라피스트 회 빈첸조 헤르만스 신부  
 티없으신 성모성심 전교자 아들회 알렉산드로 스베테 신부  
 까밀루스 회 관구장 주세페 비니 신부와 동료 두 분  
 교황청 국무성 총무 제임스 P. 커완 신부  
 N.C.W.C. 뉴스 서비스 조셉 설리반 신부  
 스위스 세인트 갈 로젠베르그 인스티튜트 부국장 프리돌린 메르크 교수 신부  
 부활회 총장 존 S. 믹스 신부 C.R. 과 동료 조셉 삼보르스키 신부 C.R.  
 스위스 기자 쥘리 후버 박사  
 법률가 교수 에랄도 투톨로몬도  
 나뮈르 노트담 수녀 두 분  
 마리아 밤비니 수녀 네 분  
 세르비에 수녀회 총장과 동료 두 분  
 비아 델라 까밀루치아 이웃 스파다 백작부인  
 파사렐리 수사들 - 건축가, 엔지니어들

알로이스 마셀라 베네딕도 추기경께서는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조지 바르취 신부, O.S.B. 와 폴 고다나 신부, O.S.B. 는 추기경의 보좌 신부로 활약했고 주세페 비니 신부는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아름다운 제단이 건물 앞 넓은 테라스에 세워졌습니다. 예식의 첫 번째 행위로 조지 바르취 신부, O.S.B. 가 돌에 새길 필사본을 읽었습니다. 필사본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Bene fundata est domus Domini supra firmam petram - 집의 굳건한 초석위에 잘 세워져" (시편 137, 2). 가장 복되시며 갈림없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구원의 해 1948 년, 7 월의 마지막 날이자 토요일인 성 이냐시오의 로욜라 축일, 교황 비오 12 세, 에우제니오 파첼리가 재임 중이고, 베네딕도 알로이스 마셀라가 추기경으로 재임 중이며, 메리 베라 어머니가 총장의 직무에 있었고, 이태리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루이지 에이나우디가, 로마 시장으로 살바토레

레베키니가 집권하던 중에 베네딕도 알로이시 마셀라 추기경이 노틀담 수녀회 총본원의 초석을 놓았다.

메리 베라 총장 어머니는 총본원 참사들과 이태리 성심회 관구장과 수녀들, 성직자들, 수녀회의 지인들과 함께 이 장엄한 예식에 참석했다.

총본원의 건축 계획은 건축가들, 빈첸조 수사들, 루치오 파사렐리가 설계했으며 이들에게는 건축 공사의 감독과 진행도 위임되었다. 엄밀한 공사는 공사 계약인 조반니 네피텔리가 맡았다.

이 집의 주인은 그 성체의 어좌앞에서 밤낮으로 “저의 기도 당신 면전의 분향으로 여기시고 저의 손 들어올리니 저녁 제물로 여겨” 주시는(시편 140,2) 그리스도이시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이 집의 모친이시며 이 집은 그분의 숭고하고 위안을 주는 이름으로 알려질 것이다. 이 부지를 구입하는데 눈에 보일 정도의 도움을 주신 성 요셉은 이 집의 아버지다운 보호자시며 최상의 조언자시다.

총본원이 기도와 노동, 회헌에 대한 충실성과 순수한 본래의 수도 정신에 대한 충성의 장이 되며 사랑과 평화의 안식처, 전 세계 수녀회의 중심이요 초점이 되기를 빈다.

우리는 초석 안에 봉해질 이 문서에 우리 서명을 담았다.



(이 부분에서 서명이 되어있다.)

로마, 1948년 7월 31일

베네딕트 알로이시 마셀라 추기경

메리 베라 어머니

메리 보나벤투라 어머니

메리 알로이시 어머니

메리 모데스타 어머니

메리 베로나 어머니

참석한 모든 성직자

빈첸조 파사렐리

루치오 파사렐리

에랄도 투톨로몬도

조반니 네피텔리

추기경께서는 문서에 서명한 다음 아래와 같은 교황님의 전보를 읽음으로써 서두를 장식하셨습니다.

"총본원을 로마로 이전한다는 노틀담 수녀회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에게 커다란 위로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심장부에 위치한 이 건물 안에 총장 어머니와 참사 수녀님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저는 이 집이 전체 수녀회에 전례없는 축복의 원천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존경받는 수녀회의 후보 추기경으로서 초석을 놓고 축복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토록

부드러운 간청으로 교회를 이끄시며 수도회를 대표하는데 매우 적극적이신 교황성하께서

이러한 기회에 우리와 일치하시고 사도적 강복에 참여함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점을

확인시켜 드리게 되어 저도 흡족합니다. 성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셨습니다.

"노틀담 수녀회 총장  
메리 베라 어머니, 비아  
코모 41, 로마  
노틀담 수녀회의 새  
총본원이 수많은 선업과  
열정적인 성체 신심의  
활동적인 중심이  
되리라고 굳게 확신하며,  
교황성께서는  
정초식에 아버지다운  
축하로 동반하시며, 이



사도적 강복이 복된 완공과 끊임없는 하느님의 도우심을 증재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사도적 강복에 마음을 다해 함께 하십시오.

몬티니, 소스티투토

교황청 국무성

1948년 7월 31일 - 전보"

곳은 날씨때문에 추기경께서는 연설을 줄이셨습니다. 그런 다음 사도적 강복을 하고  
아름답게 손으로 쓴 양피지 문서와 전보를 말아 함에 넣으셨습니다. 함은 초석의 정해진  
자리에 삽입되어 시멘트로 봉해졌습니다. 초석 강복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일꾼들이 초석을 땅  
속 깊은 곳 모를 낸 공간에 내렸습니다.



추기경께서 첫 번째 회반죽을 바르셨고 그 이후에  
저도 돌 위에 회를 발랐으며 일꾼들이 "성체조배  
성당"의 복된 무계를 견딜 정초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종교 예식은 성사의 축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새 총본원 땅에 내려주실 성체 안 임금님의 첫  
번째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는 이태리 공동체  
기도서에 있는 "집 축성"기도를 바쳤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성직자와 지인들, 실질적으로  
비오 10세의 집에 있는 모든 수녀들, 이태리 이  
구역에 위치한 세 분원의 책임자 수녀님들과 동료  
수녀님들, 북부 이태리 분원 대표들(즉, 교육 중에  
로마에 거주하는 수녀님들), 나뮈르 노틀담

수녀님들, 세르비에 수녀님들, 길 건너편의 마리아 밤비나 수녀님들과 일꾼들로 구성됩니다.  
집 축성 기도문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첫 강복이 이어졌습니다. 이 소중한 순간에 우리의  
감정은 오늘 미사 중에 사용된 시편저자의 말로써 가장 잘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거룩한 거처에 계시다, 외로운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당신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시편 67,6-7). 우리는 복되신 성모님께 바치는 사랑받는  
이태리 성가인 MIRA IL TUO POPOLO - 당신 백성을 바라보소서로 식을 끝맺었습니다.  
남성 합창은 듣기에도 아름다웠지만, 하늘을 관통하여 우리의 새 계획에도 풍성한 축복을

이끌어 내리라 확신합니다.

예식 이후에 우리는 예전의 아름다운 장미 정원 근처 부지의 뒤 쪽에 있는 정자에서 추기경, 사제들, 계약인, 건축가들, 코멘다토레 투톨로몬도를 즐겁게 해 드렸습니다. 수녀님들은 매우 기분 좋고 멋진 외관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집을 청소하고 단장했습니다. 동시에 일꾼들은 그들이 언어누릴 자격이 있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태리에서는 이것이 관례입니다. 초석 축성때 건물에서 일하는 모든 남자들은 와인, 빵, 고기, 치즈, 담배로 이루어진 “작은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행복한 모임이었고 전원이 그곳의 고요함과 기분좋은 바람, 아름다운 전경, 새로운 목적을 위한 부지의 적절함으로 즐거워 했습니다. 이 날을 마감하며 우리는 사랑하는 수녀회의 발전에 또다른 획기적인 일이 이루어졌음에 좋으신 하느님과 복되신 성모님께 진심어린 “Deo Gratias” 를 바쳐 드렸습니다.

이 날에 대한 설명은 날씨에 관련해서 일어난 “작은 기적”을 기록하지 않고는 완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체 행사 중에 탄툼 에르고를 부를 때 까지 하늘이 짙은 비구름으로 덮여있었고 반복적으로 천둥이 치고 빗방울이 조금 내렸었지만 우리 부지에서는 그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우리 주변에서는 이 시간 동안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비아 델라 까밀루치아로 향하던 추기경께서는 비 때문에 숙소로 돌아가 붉은 추기경 수단을 검은색으로 갈아입으셨고 성체를 모셔오던 신부님은 우리 집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모원에서 겨우 5분 거리인 까밀루스 수도회를 떠날 때만해도 큰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수녀님들, 우리가 이 “작은 기적”에 대해 얼마나 감사드리고 있는지 인정하시겠지요.

사랑하는 수녀님들께서는 위의 설명을 보고 새 총본원이 완공되려면 멀었다는 점을 아실 것입니다. 이제 막 착공했고, 내년 부활에는 모든 것이 24시간 성체조배에 참으로 적합할 새 총본원 건물의 고요함과 기쁨에 찬 고독을 누리리라는 희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녀님들, 그렇지만 여러분의 총본원을 기도와 희생 안에 포함하여 주시겠지요. 수녀님들의 것이니 말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총본원은 우리 정신의 중심이자 우리 일치와 상징입니다. 우리 하느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이 소중한 유산을 강복하시고 지켜주시어 이들이 열매를 맺고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총본원과 세 번째 모원 매입을 기념하는 동시에 이 계획과 그토록 밀접히 연관되시며 복된 기억을 남기신 고(故) 메리 세실리아 어머니와 메리 안토니에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우리는 공지가 있을 때까지 사순 시기를 제외하고 매주 화요일 저녁 식사 때 주간 오락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독일과 네덜란드에 계신 우리 수녀님들,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어머니가 공식방문을 늦춰야 했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을 제 마음에 담고 있고 좋으신 주님께 “일을 조금 서두르셔서” 제가 조만간 이 두 나라에 계신 사랑하는 수녀님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자주 청했습니다. 반면에 일 이주일 동안 시간을 낼 수 있게 되어 영국, 벨기에, 스페인을 방문했습니다. 올 가을에는 적어도 두 달은 자리를 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 분원을 방문하고 모든 수녀님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이 정규 공식방문은 아닙니다. 새 총본원이 완공될 때까지는 제가 긴 시간을 내는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부활 후 안정이 되고 새 집 축성식을 갖는대로 정기 공식방문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녀님들, 우리 큰

수녀회에서 영구적 중심인 모원과 총본원은 긴급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내와 이해를 통해 많은 문제거리와 곤란함이 빠르게 처리되었다고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수녀회에서 유서깊은 관례는 모든 분원들이 새로 형성되는 기관을 할 수 있는만큼 돕기를 기대합니다. 수녀님들은 이를 참으로 충실히, 자매적인 사랑으로 해주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상황으로 인해 독일과 네덜란드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수녀님들은 물질적인 방법으로 돕는 일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나중에 여왕이신 마리아 관구는 수녀님들 몇을 더 파견하여 매우 관대히 우리를 도울 계획입니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여러 분원에서 가지고 계신 덮개나 제의로 이곳 성당 물품을 마련하는 데 보조해 주실 수 있다면 무척이나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수녀님들이 보유하고 계신 물품을 재 공급할 수단이 없기에 저희는 새 물품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수녀님들의 자원을 궁핍하게 하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약간의 도움이라도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미국, 브라질, 이태리에 계신 사랑하는 수녀님들은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는 특히 마지막 수녀님들이 미국 땅에서 왔을 때 드러났습니다. 하느님께서 수 천배로 축복해 주시고 풍성히 갚아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어머니,

(서명) 메리 베라